

자평

나의 그림은 꽃과 나무를 통하여 치유라는 큰 맥락에서 조형의 세계를 찾고 있다.

사상이나 이슈보다 소박함, 고요함, 순수함에 기본을 두고 있다. 사소한 주변에서 행복이 튀어나오고, 따뜻한 시선이 행복을 이끌어 간다고 본다. 길을 나서면 자연의 온갖 형상들이 아름다운 선과 색으로 나를 유혹하여 경이로움에 가슴 벅차게 한다.

시간이 흐르며 나의 작업은 풍경과 정물을 중심으로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미학에 충실성을 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자연을 빌어 미적 감수성을 표현하려고 애썼다. 눈앞에 보여지는 대상의 본질은 조형적인 색채와 감각으로 풀어나가기로 추구했다. 더불어 나의 정서와 어울리는 적당히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들어나지 않는 화려함이 숨어있는 그리고 조금은 따뜻함이 묻어 있는 순수성을 표현하려고 했다.

최근 나무를 그림에 있어 내 감성을 옮겨 놓은 듯한 시 한수를 읊조려 본다.

나무의 꿈(정 현종)

그 잎 위에 흘러내리는 햇빛과 잎 맞추며
나무는 그의 힘을 꿈꾸고
그 위에 내리는 비와 뽕 비비며
나무는 소리 내어 그의 피를 꿈꾸고
가지에 부는 바람의 푸른 힘으로
나무는 자기의 생(生)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나무와 나무로 어우러진 숲, 숲과 숲 사이로 흐르는 바람의 기운이며 운무사이로 비친 비단 같은 영롱한 햇살들은 나의 작업의 주안점이며 그것을 표현하고자 나의 정열을 녹이고 있다.

심오한 자연의 섭리속의 자연의 조형세계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신비한 힘이며, 그 힘은 새로운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꾸밈이 없는 본연의 자연, 그 모습에서 나무를 더 나가 숲을 정물화화 시켜본다. 경이로운 자연과 접할 때 가슴은 설렘으로 펄떡거린다. 더욱이 숲 속을 거닐며 문득 나무들과 나란히 될 때 가슴 속 심연으로부터 정화되어오는 느낌은 작가인 내게 뜨거움을 안겨다 준다. 간결하면서도 긴장감 있는 형상으로 나무의 향기가 묻어나는 감성을 추구해 보았다.

또한, 나의 그림세계의 끊임없는 화두인 맨드라미 꽃은 나의 내면의 뜨거움과 동일화 시켜 세월을 따라 화면에 구성되어지고 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뜨겁게 바라보던 나의 가슴에 내제되어 있는 정열을 표현했다. 그리고 꽃에서 보여지는 빨간색의 화려함보다는 꽃의 내면의 본질인 보여지지 않는 순수와 고요함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이후 내가 나무라는 소재를 택함에 있어서도, 아마도 부단히 움직이며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되는 나무의 굳건한 기상과 소박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어 붓끝은 절로 그리로 거닐었다.

화려하면서 친숙한 꽃과 나무들의 향연을 통해 발산되는 에너지를 나만의 표현에 의해 화폭에 창조하고, 내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싶었다. 그리고 이즈음 나는 색채를 간략화 시켜보고 싶은 욕구와 재료가 유화재료이지만 동양적인 느낌을 표현해 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깊이 사색된 삶을 더 깊이 관조하여 인생의 깊은 정체성까지 이끌어내어 표현하고 고단한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다.

3. 기타

김숙 화가

“맨드라미는 나의 삶을 담은 그릇이죠”

마티에르 기법과 섬세한 붓터치로 화려함·생동감 표현

‘맨드라미 화가’로 불리는 김숙 화가는 10 여년이 넘게 자신의 삶을 맨드라미에 투영시켜 작가와 대상의 동질성을 표현해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열정’의 꽃말을 갖는 맨드라미는 강렬한 색상과 강한 번식력·생명력을 지닌 꽃이다.

김 화가는 부친의 반대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림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오직 작품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특히 남편과 아이들의 이해와 사랑을 근간으로 삶의 ‘희로애락’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 작가의 삶은 맨드라미의 강인한 생명력과 닮았다.

김숙 화가는 “야외 사생을 다니면서 맨드라미를 접했는데, 터프함이 제 정서와 와 닿는 것을 느꼈다. 맨드라미는 생명력이 강하고 우직한 맛이 있다. 유화로 소나무, 낙엽송 등 그림을 그리다가 맨드라미도 유화로 작업해 좋은 반응을 얻어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숙 화가가 그려내는 맨드라미는 그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김 화가는 맨드라미에 투영된 도도함, 강인함, 꿈틀대는 생의 욕망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생명력을 부여해 화폭에 창조해 내고 있다.

김숙 화가의 맨드라미 작품을 보면 유화물감을 마치 부조 작업을 하듯 두껍게 붓질을 반복해 거친 질감을 표현하는 마티에르·임파스토 기법을 사용했다. 김 화가는 이를 통해 맨드라미의 색감과 형상의 강인함을 표현하면서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붓 터치로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대상의 본질을 삶에 대한 정열과 합일하여 조형적인 색채와 감각으로 풀어내가기를 추구하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맨드라미 등 대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배경 화면을 색면추상으로 처리한 것도 김 화가의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특히 2017 년 作인 ‘cockscomb1’을 보면 기법은 서양화법을 채용하되, 배경에 한지의 은은한 느낌을 담아내는 등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는 추상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맨드라미와 같은 기법으로 소나무 등 다른 소재를 택해 변화를 주고 싶다는 작가적 욕심을 표하는 김숙 화가. 그의 작품은 오는 12 일 인사동 올미아트스페이스 개인전과 10 월 한국구상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성창희 기자